

닛신보 - 면과 아크릴 등 혼용신소재 개발

닛신보는 추동절용 편포(編布)로서 세 가지 특수 아크릴섬유를 각기 면과 혼용(混用)하여 내의나 아우터(outer)용 소재를 개발하였다.

“아크릴트론 E”는 이너용으로 품질이 좋은 면에, 정전기(靜電氣)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아크릴섬유 “슈퍼엘렉킬”을 혼방하였다. 이 아크릴섬유는 섬유 자체가 도전성(導電性)을 갖고 있으므로, 의복을 벗을 때 발생하는 방전(放電)을 억제하는 코로나방전(corona discharge)을 시킴으로써, 불쾌한 방전소리나 옷이 몸에 들러붙는 현상을 줄여준다.

“아크릴트론 T”도 내의용으로 극세아크릴 “티미안”과 면의 특수교연사(特殊交攪絲)로서, 이 실로 짠 편포는 정전기억제 효과가 있으면서도 광택이 좋고 천의 표면이 깨끗하고 보습성(保濕性)이 좋다.

“아크릴트론 W”는 아우터용으로, 따스하며 벌크성이 좋고 가벼운 소재로서, 면과 혼방해주는 아크릴섬유는 태양의 광(光) 에너지를 받으면 열로 바뀌므로써 우리 몸을 따스하게 해 주는 특수물질인 “서모캐치(Thermo-catch) W”를 이겨 넣은 섬유이다.

또한 닛신보는 초장면 “수피마(Supima)”와 비스코스레이온의 H.W.M.(High Wet Modulus)섬유인 마이크로모달(micro-modal)과의 특수교연사로 짠 편포를 신소재로 개발하였다.

이 특수교연사는 방적공정에서 꼬임을 줘 단사를 만들기 전에 2가닥의 섬유속으로부터 직접 교연(交攪)한다. 이 실은 한 올의 실로 꼬아주기 전에 각

각의 섬유속에 조금씩 꼬임을 주기 때문에 보통의 실과 비교하면 잔털이 아주 적다. 그래서 실의 표면이 매끄럽고 클리어(clear)한 표면감(表面感)과 드레이프(drape)성이 좋고 아름다운 광택이 난다. 여성용 inner(이너)용으로 상품화하고 있으며 곧 본생산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